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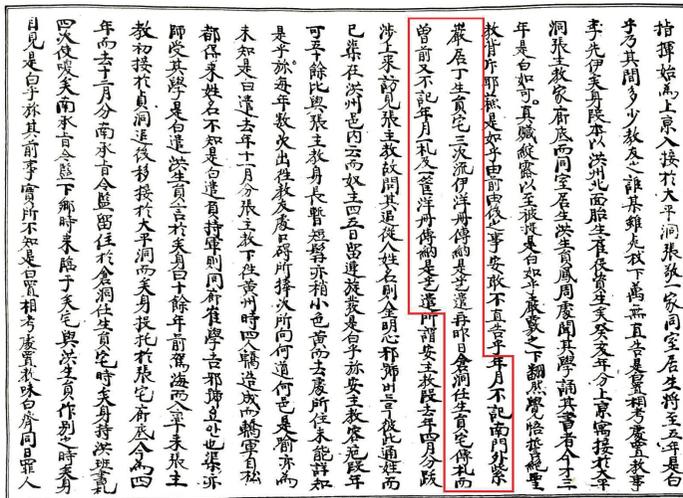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19세기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7)

-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2021년) 내용 소개와 보완 -

필자는 2021년에 집필한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공저, 서울역사편찬원, 2021년 3월)을 새롭게 수정·보완해서 『상교우서』 독자와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호부터 위의 글 중 3~4절 부분과 새로 보완할 내용을 정리해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위의 글 ‘3-2절 서울 목판인쇄소의 운영과 천주교서적의 유통 (3) 간행된 천주교서적의 종류와 수량, 배포 지역’의 내용 중 첫 번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위의 글 ‘3-2절 (3) 간행된 천주교서적의 종류와 수량, 배포 지역’의 내용 중 두 번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베르뇌 주교 지시로 천주교서적을 운반했다는 이선이의 진술 (『좌포도청등록』 하권[영인본] 382쪽)

서울 목판인쇄소의 운영과 천주교서적의 유통

(3) 간행된 천주교서적의 종류와 수량, 배포 지역 [下]

* 2021년 글(250~253쪽)에서 각주와 일부 인용문을 제외했고, 한자와 추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밑줄로 표시)

(저번 호에 이어서)

베르뇌 주교의 하인이었던 이선이는 포도청 심문에서 배교를 선언한 다음 자신이 베르뇌 주교의 지시로 서적을 운반했다고 진술했다.

연월(年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남문 밖 자암(紫巖)에 사는 정(丁) 생원(정의배) 댁에 세 차례 양책(洋冊, 천주교서적)을 전하여 드렸고, 그저께는 창동(倉洞) 임(任) 생원(임치화) 생원 댁에 편지를 전하였고, 연월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찍이 전에도 또 편지와 함께 한 고리짜의 양책 전하여 드렸습니다.

* 『좌포도청등록』, 병인년(1866) 1월 15일 이선이 공초 ; 영인본(1985년) 하권, 382쪽.

창동 임치화(任致禾)의 집은 또다른 인쇄소가 있던 곳으로 이선이가 가져온 ‘한 고리짜’의 서적은 창동 인쇄소에서 간행했다가 대목구장의 감수를 받고 다시 돌아온 책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최형의 인쇄소나 제3의 인쇄소에서 간행된 책이 베르뇌 주교의 지시로 창동 임치화 집으로 옮겨진 것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남대문 안쪽에 가까이 위치한 임치화의 집이 인쇄소인 동시에 서적의 중간집결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앞서 5월호 2쪽 1862년 가을 이전에 『천주성교예규』가 이미 간행되어 천주교 장례예식에 활용되고 있었다고 언급했는데, 다블뤼 주교의 서한에 의하면 경상도가 그 지역이었다. 즉 『천주성교예규』가 간행된 후 서울은 물론 경상도를 비롯한 지방에까지 빠르게 보급되었던 것이다.

[심문] 천주교 서적을 몇 곳에나 배포했느냐?

[진술] 장(베르뇌) 주교에게 죄다 실어 보냈습니다. 그가 여기저기 나누어 준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심문] 한 권당 매매한 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진술] 그 가격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 같지가 않습니다.

* 『추안급국안』, 병인년(1866) 1월 19일 최형 3차 추국 ; 『추안급국안』 85, 114쪽.

[1876년 당시 1866년에 비해 물가가 치솟아 올라 필사본] 『(성교)요리문답』은 1866년의 40사페크[0.4냥]가 아닌 1냥 3돈, 즉 130사페크에 팔렸고, [필사본] 『(천주성교)공과』 1권과 4권은 한 권당 2냥, 2권과 3권은 각각 3냥으로, 다 합치면 예전처럼 3.5냥이 아닌 10냥이 되었고, 남쪽 지방에서는 심지어 12냥에 팔렸습니다.

* 블랑 신부가 1876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리델 주교에게 보낸 서한 ; A-MEP, Vol.580, ff.157~158.

막대한 대목구 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서적은 신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각 선교지의 선교사제나 지도자 신자(회장)들을 통해 유가로 판매되었다. 한글 천주교서적이 간행되어 유포되었던 1861~1866년 당시의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책 가격은 나오지 않고, 책의 종류에 따라 값이 달랐다

는 최형의 진술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대신 1876년 조선 입국에 성공한 블랑 신부는 제6대 조선대목구장 리텔 주교에게 보내는 10월 10일 서한에서 당시 필사본으로 유통된 천주교서적의 가격을 기록해 두었다. 이때 1866년 당시 목판본 천주교서적의 가격도 함께 기록했는데, 단권인 『성교요리문답』은 0.4냥[4돈], 『천주성교공과』 한 질[4책]은 다 합쳐 3.5냥이라고 했다. 4책으로 된 『천주성교공과』는 한 권당 대략 0.87냥[8돈 7푼]이 되는 셈이고, 『성교요리문답』보다 두 배 가격이 된다.

이렇게 판매된 서적의 대금은 회장과 선교사제들을 통해 대목구장에게 전달되었고, 대목구장은 그 대금을 목판인쇄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임과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천주교서적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신자 교육과 천주교 전파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목판인쇄-서적 유통에 참여한 신자들의 생계를 보존해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즉 상업적 측면에서도 서울 목판인쇄소는 조선대목구의 주요 사업이었던 것이다.

서울 목판인쇄소를 통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주교서적들을 생산하여 넓은 지역에 빠르게 서적들을 보급할 수 있었지만, 1860년대 중반 교세 확장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고 서적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1864~1865년에 걸쳐 그전까지 천주교가 전파되지 않았던 황해도·평안도 지역에 천주교 입교의 바람이 불면서 천주교서적의 수요는 크게 늘어났다. 반면 서울 목판인쇄소의 간행 규모로는 새로운 선교지역까지 충분한 서적을 공급할 수 없었다. 이때 대목구장이나 선교사제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나 서적의 부족을 메꾸게 되었다.

현재 [개종하려는] 움직임이 엄청나게 많은데, 특히 북쪽 지방에서 사람들이 대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이 개종하고 있어서 심지어 비신자들조차 기도문을 필사해서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파는가 하면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팔고 있습니다.

* 도리 신부가 1865년 10월 16일에 작성한 서한 ; 윤민구 신부 역, 『성 도리 신부의 편지』, 기쁜소식, 2018, 402~403쪽.

조만간 천주교가 공인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황해도·평안도 지역에서 수천 명이 천주교에 입교하여 교리와 기도문을 공부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숫자만큼의 교리서와 기도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충분한 수량의 목판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사본이 부족한 수량을 메꾸게 되었고, 이 기회를 맞아 비신자들까지도 천주교의 기도문을 필사하여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팔거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팔았던 것이다.

천주교서적의 ‘상품성’이 비신자들에게까지 인식되어 원칙상 대목구장의 허가가 없으면 생산·배포될 수 없는 천주교서적이 필사본 형태로 유통되었던 것이다. 비록 1866년 교육(敎獄, 천주교 박해) 발발로 서울 목판인쇄소의 간행과 비인가 필사본의 제작이 중단되었지만, 천주교 교세의 확장과 더불어 천주교서적의 ‘상품성’이 점차 커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861년 이후 1865년까지 10종 이상의 천주교서적이 서울 인쇄소 세 곳에서 수만 권 이상 간행되어 신자들과 예비신자들에게 배포되었다. 대규모의 목판 간행을 통해 베르뇌 주교가 기대했던 신자 교육 강화와 천주교 전파 확대가 이루어졌다.

[공소 방문에서] 찰고가 끝나면 저는 고해를 듣습니다. 그동안 20여 명의 여신자들이 끼어 앉아 있는 작은 방과 남자들이 있는 방에서는 또 영적 독서가 진행되는데, 간막이를 쓰러뜨릴 정도로 가득 찬 2평방미터의 방 두 칸에서 24시간 내내 책 읽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 베르뇌 주교가 1863년 2월 20일에 누아르 신부에게 보낸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375쪽.

베르뇌 주교를 비롯한 선교사제가 공소를 방문하여 성사를 집전할 때 신자들은 보급된 천주교서적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서 전교와 신자들의 노력으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목판인쇄소 건립 이전인 1859년도 당시의 신자 수는 16,700명이었고 최초의 목판인쇄소가 건립된 1861년에는 18,035명인데 매년 650명씩 늘어났다. 그후 4년 후인 1865년 말에는 신자 수가 23,000명으로 추정되는데 매년 1,250명씩 늘어날 수 있었다. 목판 천주교서적의 보급과 함께 신자 수의 증가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내용 추가]

베르뇌 주교가 설립한 서울 목판인쇄소에서 간행한 자료에는 서책 외에 첼레표(전례력)도 있었다. 현재 ‘병인년(1866) 첼레표’가 절두산순교성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866년 이전에 신자들이 대량으로 인쇄된 첼레표를 통해 주일과 축일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병인년 첼레표」(절두산순교성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소장)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2호, 3월 31일 간행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 『병인순교자 시복재판록』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